

## 독일 경제아카이브즈의 형성과 유형\*

김 영 애\*\*

1. 머리말
2. 경제아카이브즈의 성립과 발전
  - 1) 경제아카이브즈의 등장
  -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 3) 독일 통일 이후의 발전
3. 경제아카이브즈의 유형과 사례
  - 1) 기업아카이브즈
  - 2) 지역 경제아카이브즈
  - 3) 업종별 아카이브즈
4. 맺음말

주제어 : 독일 경제아카이브즈, 외국 아카이브즈

### 1. 머리말

기업아카이브즈(또는 기업기록관)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보고서『기업아카이브즈에 대한 사례 연구』(공동연구, 미간행), 중 독일에 관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논저 : 「독일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기록학연구』3, 2000. 3,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 공동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1

용어이다. 개별기업에 따라 ‘자료관’, ‘역사관’, ‘박물관’ 등 유사 형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생산된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즈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카이브즈가 영구보존기록을 관리하는 곳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사료로서 영구기록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기업의 역사를 편찬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아카이브즈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온 곳이 있다면 사사편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편찬은 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념행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집된 자료조차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정보가 곧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에서 지식과 정보관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 내에서 정보와 지식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초가 되는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경영학과 IT를 결합한 시스템개발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데에 한정되어 있을 뿐, 기업 아카이브즈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나 기업 또는 경제기록물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것을 기업 또는 사회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식은 여전히 희박하다.

어떤 사회의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는 그 사회의 기업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생산한 1차 자료가 중요한 자료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기록이 개별기업 자체에 갖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갖

---

1) 기업아카이브즈는 독일어로는 Unternehmensarchiv이다. 기록물은 Archival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아카이브즈’라는 용어가 영구기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를 보존관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용 또는 비현용의 단계를 지나 영구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서 아카이브즈에서 관리되는 기록물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로서의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기록 또는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의미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업 기록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개별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이용되는 기록물의 관리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개별 기업의 현용기록에 대한 책임은 개별기업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영구보존기록은 기업의 문화유산으로서 개별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후대에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사회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기록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경제관련조직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을 자료로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그 조직은 물론, 그 조직이 속한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경제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일반에게 공개해 온 사례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나<sup>2)</sup> 서구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기업자체에 아카이브즈를 설립하여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외에도 예를 들면 대학이나 협회 등에서 경제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즈를 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카이브즈와 똑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기관이 사료관, 역사관, 기술관, 계몽관, 산업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또 기업관계자료

- 
- 2)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비체계적인 형태로 자료들이 수집되어 만들어진 자료관, 전시관, 박물관 형태는 볼 수 있지만, 그 성격이나 목적으로 볼 때 기업 내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지속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본래의 의미의 아카이브즈와는 구분된다. 산발적인 기록의 수집이라는 기능면과 또 아카이브즈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열람기능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기업아카이브즈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3) 김익한 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기업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

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업아카이비스트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한 기업사료협의회가 존재하고 『기업과 사료』라는 회지도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사료협의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사의 사사편찬이나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열람의 기능까지 갖춘 기업아카이브즈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아카이브즈의 생성 및 전개과정은 그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기반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사례가 우리의 모델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기록,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구기록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영구기록의 관리가 사사편찬이라는 단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국가, 자치단체, 귀족, 교회 등이 아카이브즈를 운영하여 아카이브즈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때문에 오늘날 아카이브즈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기업아카이브즈는 다른 아카이브즈의 역사에 비해 역사가 비교적 짧아 그 시작은 20세기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많은 아카이브즈가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독일의 중공업기업 크루프사가 최초의 기업아카이브즈를 설치하는 등으로 독일은 기업아카이브즈 문화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기업아카이브즈의 역사가 긴 만큼 기업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고민의 역사도 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기업아카이브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지만<sup>4)</sup> 독일의 사례는

---

원 연구보고서 2000-01, 38쪽.

4) 김익한 외, 같은 책.

우리 나라에서 기업아카이브즈의 창설 및 기업기록관리에 관해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독일 기업아카이브즈의 발전과정과 기업기록의 관리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아카이브즈라는 하나의 기록관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독일사회가 전반적인 사회관리의 틀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존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 2. 경제아카이브즈의 성립과 발전

경제분야의 기록이나 기업관련 기록을 논할 때는 기업아카이브즈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경제아카이브즈(Wirtschafts- archiv)라는 개념이 기업아카이브즈(Unternehmensarchiv)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Company archives 또는 Corporate archives가 개별기업의 아카이브즈를 일컫는다면 Business Archives는 경제관련 기록물 또는 이를 관리하는 곳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아카이브즈는 이 경제아카이브즈의 카테고리 내에 하나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아카이브즈라는 용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경제관련 기록물을 모두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아카이브즈는 개별 기업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형태로 한정하고, 보다 큰 틀에서 다양한 아카이브즈의 유형을 포괄하는 경제아카이브즈의 개념을 가지고 전반적인 경제관련 기록물의 관리측면에 접근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즈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기록물이나 경제기록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선미는 경제 또는 기업 기록

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국 내 기업기록물 관리기관의 유형을 관리주체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sup>5)</sup> 즉, 역사학회 및 연구도서관, 지방기록관, 대학이 운영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기업자체에 의한 관리형태가 그것이다. 또 김재남은 기록관의 유형을 상업적 기록관, 산업별 기록관, 기업 내 기록관으로 구분하여 사사편찬과 관련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등에 관해 논하였다.<sup>6)</sup>

그러나 전자의 유형적 분류는 기록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또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그 아카이브즈 자체가 그 유형에 따라 분명한 기능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 후자의 경우, 상업적 기록관은 기업기록관리의 효용성측면에서 기업이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체방법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것을 아카이브즈가 지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유형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상업적 아카이브즈가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산으로서 기업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라는 시각에서 아카이브즈를 바라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독일의 경우, 누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느냐하는 운영주체의 구분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지만, 경제관련기록을 사회적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적해가는 과정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기록관 자체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 그 형태가 구분된다.

5) 고선미, 『포스코 기업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록관리학적 분석』,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0-28쪽.

6) 김재남, 『사사편찬을 중심으로 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54-63쪽.

## 1) 경제아카이브즈의 등장<sup>7)</sup>

독일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사회생활 및 노동세계에 혁명이 일고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연구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특히 역사학에서 그때까지 연구주제가 주로 정치적 영역의 사실이나 사건이었던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분석으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19세기 말 이후 역사가 카알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가 주도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연구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연구자료의 확보 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국가나 자치단체의 아카이브즈에 보존된 자료만으로 경제사적, 사회사적, 기업사적, 기술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 외에 경제주체, 다시 말해 기업, 상공회의소, 경제관련협회 등에서 나오는 일차자료의 확보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05년 람프레히트의 제자 아르민 틸레(Armin Tille)는 「기업아카이브즈」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110쪽 짜리 글에서 일정한 단위경제영역에 '지역아카이브즈'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그는 무엇보다 이 아카이브즈가 국가나 시의 아카이브즈에 부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시설로 설립되고, 기업이나 상공회의소, 협회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모델은 다음 해에 그 실현을 보게 된다.

한편, 연구자료로서의 기업기록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관심 외에도, 대기업 자체에서도 권한의 확보·유지를 위해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

7)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은 Evelyn Kroker, hrsg., *Handbuch fuer Wirtschaftsarchive*, Muenchen: Oldenbourg, 1998, pp. 9-20 참조

있었고 또, 기업규모와 활동의 팽창으로 인해 기록물이 대규모로 증가하게 되자 평가선별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 수십 년의 역사를 갖게 된 기업들이 창립기념 사사편찬사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5년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철강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크루프사의 아카이브즈다. 실제로 크루프사에서 아카이브즈 설립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를 증거하는 기록물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이어 1907년에는 지멘스 아카이브즈와 바이에르 아카이브즈가 창설되었다. 1906년에는 지역의 경제관련, 기업관련 기록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지역아카이브즈'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쾰른의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아카이브즈, 자아브뤼켄의 남서독일 경제아카이브즈 등이 그것이다.

이와 비슷한 움직임은 라이프찌히에서도 일어났다. 1887년에 가장 오래된 라이프찌히 상인 협회가 해체되면서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이 그 곳 상공회의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기록물을 중심으로 1906년에 라이프찌히 경제사아카이브즈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독일에서 오늘날까지 경제아카이브즈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 개 중 두 개의 기본모델 즉, 기업아카이브즈와 지역 경제아카이브즈가 형성된 셈이다.

이렇게 연이은 아카이브즈의 창설, 그리고 1913년 쾰른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98명이 참가한 경제아카이브즈 전문가들의 모임행사(Allgemeine Wirtschaftsarchivtag)와 더불어 독일 경제아카이브즈의 설립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아카이브즈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일차대전의 발발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독일에서 경제아카이브즈에 대한 재인식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년의 정체기를 거친 후 3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이 때는 기업기록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 기업의 기록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강제이관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점이었다.<sup>8)</sup> 이를 피하기 위해서 라인 베스트팔렌 철도·철강업계 대표자들이 선두에 나서 보존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아카이브즈문제 담당 및 상담역을 두고 동종업계 기업에 대해 기업아카이브즈설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많은 개별기업들이 기업 내에 자체아카이브즈를 창설하게 되었다. 뒤스부르크의 아우구스트 튀센 휘테(August Thyssen-Hütte), 뒤셀도르프의 도이체 로렌베르크(Deutsche Roehrenwerke), 뮐하임의 도이체 아이젠베르크(Deutsche Eisenwerke) 등의 업체가 기업아카이브즈를 세웠다. 이 영향으로 철강업 외의 다른 업계에서도 아카이브즈설립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1941년에는 도르트문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지역아카이브즈인 베스트팔렌 경제아카이브즈가 창설되어 아카이브즈의 미래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8) Evelyn Kroker, *hrsg., ibid.*, p.12. 강제이관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30년대에는 이미 나치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독일의 공공 아카이브즈에는 경제기록물이 상당수 보존관리되고 있다. 경제기록물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곳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률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991년도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공공기록관에 기업, 협회, 회의소에서 생산된 경제기록물의 소장현황에 관해 책으로 출판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Ulrike Duda bearb., *Bestände von Unternehmen, Unternehmern, Kammern und Verbänden der Wirtschaft in Öffentlichen Archiv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uttgart, 1991) 백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수 불가능하여 아쉽게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없었다.

##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아카이브즈의 발전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힌 독일은 전후에 국가가 분단되면서 서독과 동독이 별개의 길을 걷게 된다. 우선 서독은 '전통으로부터 진보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50년 중반부터 새로운 성장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는 1957년 오늘날의 독일경제아키비스트협회(Vereinigung deutscher Wirtschaftsarchivare, VdW)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독일기업아키비스트협회(Vereinigung deutscher Werksarchivare)'의 결성이 크게 일조하였다. 오늘날까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VdW는 최초로 지역을 초월하여 결성된 이익단체로, 현재 300여 개의 기업, 기관, 개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아카이브즈 촉진, 기업사 연구지원, 교육 및 지속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아카이브즈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정, 재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낯선 기초지식과 직업경험을 가지고 접해야 하는 경제부문 아키비스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dW는 이 외에도 기업아카이브즈의 창설 계획 및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이나 인력충원에 관한 조언, 구체적인 개별문제의 해결지원, 기업사를 위한 연구 및 출판사업 지원 등은 물론, 현안의 전문적인 주제에 관해 매년 회의를 주관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전문직업단체, 기타 관련기관과 공동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 1967년부터는 계간으로 경제아카이브즈 학술지 『아카이브즈와 경제(Archiv und Wirtschaft)』를 발간하여 경제사, 기업사, 기업아카이브즈, 그리고 관련분야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논하고 회합이나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제아카이브즈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VdW의 창립과 함께 1960

년대 기업아카이브즈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된 또 하나의 현상으로는 1962년에 독일아키비스트 협회의 분과로 탄생된 경제아키비스트의 제5분과 전문그룹의 형성<sup>9)</sup>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지역아카이브즈, 기업아카이브즈 등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동안, 1969년에는 또 루어탄광지역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인 업종별 아카이브즈(Branchenarchiv)<sup>10)</sup>가 보쿰에 설립되었고, 도자기공업, 서적업계가 그 뒤를 따랐다.

서독 경제아카이브즈의 발전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초기의 기업아카이브즈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아카이브즈도 국가의 지시나 법적 인 구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전체적인 틀에 연계되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동독에서는 서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제의 국유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1950년 4월 27일에 산업부와 함께 내무부가 발표한 “기

- 
- 9) 독일아키비스트협회의 전문그룹은 국립아카이브즈 분과, 시립 및 지역 아카이브즈 분과, 교회아카이브즈분과, 영주 및 가족아카이브즈, 경제아카이브즈, 정당 및 의회 아카이브즈, 미디어 아카이브즈, 대학 및 연구기관 아카이브즈 등 총7개로 나뉘어져 있다. 각 그룹은 매년 개최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모임인 ‘독일아키비스트대회(Der Deutsche Archivtag)’에서 분과별로 정보와 상호간의 성과를 교환하고, 연중행사로 분과별 회합을 갖기도 한다. 2001년에 개최된 경제아카이브즈 아키비스트의 모임에는 170여명의 경제아카이브즈 아키비스트가 참여하였다. 참고로 독일아키비스트협회(VdA - Verband deutscher Archivarinnen und Archivare e.V.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의 기록관리전문가 협회로, 회원은 2,200여명에 달한다.
- 10) 업종별 아카이브즈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업계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한 Space Archives, 스코틀랜드의 주류산업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Scottish Brewing Archives 등을 들 수 있다. Scottish Brewing Archives는 독립적인 기록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Glasgow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독립적인 업종별 아카이브즈와 다소 차이가 있다. 김재남, 앞의 논문 및 김재훈 외, 『기업아카이브즈에 대한 사례연구』, 국가기록연구원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3. 6. 참조.

업아카이브설립을 위한 법령”을 보면 모든 국영기업은 국립아카이브즈의 지시에 맞추어 기업아카이브즈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다.<sup>11)</sup> 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물이 수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1945년 이전 내지는 기업이 국유화되기 이전에 나온 문서, 프린트물, 복사물, 그림 등 업무상 및 기술적인 문서, b) 1945년 5월 8일 이후 내지는 국영 기업으로 위양된 후에 업무상 발생된,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기록물 c) 상법 44조에 따라 10년간 보존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법률의 영향으로 1952년에는 아카이브즈의 수가 5000여 개에 달하기도 하였지만, 기업의 합병으로 그 수는 해가 가면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은 주로 오래된 경영등록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카이브즈의 수를 가지고 이들이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해왔다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당시에는 또 경영상의 이해를 둘러싸고 기업아카이브즈의 인력, 공간, 기술적인 장비확보 등을 두고 투쟁하는 일이 기록관리분야의 일상이었고, 따라서 기업간에 인력배치, 장비, 재정수단 확보 면에서도 아카이브즈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독에서는 광범위하게 기업아카이브즈를 설치하여 사회주의 경제 아카이브즈를 위한 초석은 마련이 되었으나 이러한 조직원칙이 중앙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 6월 17일 제정된 ‘국립아카이브즈에 관한 법령’ 총칙 6조에서는 기업아카이브즈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립아카이브즈가 기업기록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또 1976년 3월 11일에 제정된 국립아카이브즈에 관한 법령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즈형태의

11) Anweisung zur Errichtung von Betriebsarchiven vom 27. April 1950. MinBl Nr.10, 1950. Evelyn Kroker, *Ibid.* p.15에서 재인용.

임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경제관리아카이브즈(Verwaltungsarchiv der Wirtschaft)를 중간아카이브즈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한정하고 국립아카이브즈를 최종아카이브즈로서 경제기록물의 이관 책임을 갖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관리아카이브즈는 최종아카이브즈로 이관되기까지 기록물을 보존하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기업아카이브즈 중에는 몇 개만이 최종아카이브즈로 정해졌다.

이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국립아카이브즈에는 경제기록물이 대량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들은 기업, 경제, 사회, 기술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존되었다. 이 1976년의 아카이브즈법령과 골격시스템이 1990년까지 동독의 경제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 3) 독일 통일 이후의 발전

독일의 통일은 기업아카이브즈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더욱 그러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실시되기 시작한 구동독경제의 사유화와 더불어 기업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관리는 각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해체로 경제기록물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아직 기업아카이브즈에 보존된 것으로서 국립아카이브즈로 이관될 기록, 구동독의 국유 중소기업의 기록물로서 기업에 남아 있던 기록물, 소유권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임금과 관련하여 증거가 되거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록물로서 기한을 정해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물들이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 때, 국립아카이브즈는 1990년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기록물을 보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사이에 이들 기록물의 이관문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확실히 밝혀주는 구동독아카이브즈법이 통과되었다. 또 독일아키비스트협회의 끈질긴 노력의 덕분으로 폐업한 신탁기업의 기록물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선도활동이 시작되었

고, 1991년에는 폐업기업의 기록물(Archivgut)과 Registraturgut(등록대장류)가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과 5개의 새로운 주(구동독)에 주보관소(Landesdepts)가 건립되었다. 주보관소의 주요 임무는 중간보존소로서 “폐업기록물”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1993년에 이미 지역아카이브즈가 현실화되어 라이프찌히에 작센 경제아카이브즈가 창설되어 구 동독지역에서도 경제아카이브즈의 미래를 비추어 주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기록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늘 전면으로 두각되었고, 또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해온 흔적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기업아카이브즈 또는 경제아카이브즈는 사회의 발전구조를 이해하고 경제사, 사회사, 기술사연구를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경제사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독일 사회 구성원의 자각과 인식으로부터 탄생되었다. 물론 개별적인 기업의 아카이브즈는 분명 개별적인 명분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이것도 아카이브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인식의 성장이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경제아카이브즈의 유형과 사례

독일의 기업사협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이나 협회아카이브즈 등을 모두 포함한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는 현재 약 250여 개에 이른다.<sup>12)</sup> 이 중 아카이브즈에 기록관리 담당자, 즉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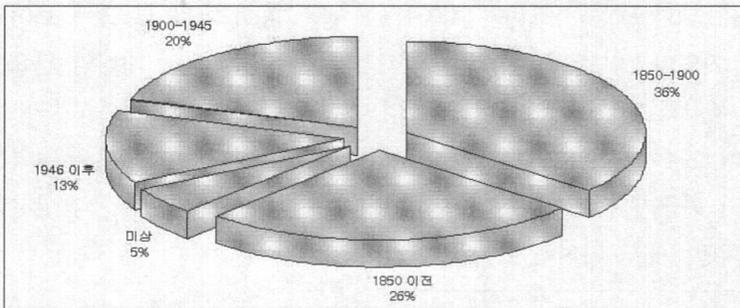
12) 기업사협회는 1976년 처음으로 독일의 모든 형태의 경제아카이브즈에 소장되어 있는 경제기록물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78년에 독일경제아카이브즈의 주소지, 약력, 소장물등이 수록된 “독일의 기업아카이브즈(Deutsche Wirtschaftsarchiv)”를 출판하였다. 이후 1994년에 세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

키비스트를 별도로 고용하여 상근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약 110여 곳이고, 그 밖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겸직하거나 명예직이 담당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경제아카이브즈가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지만,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에 소장되어 있는 경제기록물의 연도별 분포를 그림<1>에서 살펴보면 100년 이상 보존되어온 기록물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아카이브즈의 등장으로 이러한 기록물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아카이브즈의 세 가지 유형, 즉 기업 아카이브즈, 지역 경제아카이브즈, 업종별 아카이브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카이브즈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1> 독일의 경제기록물 연도별 분포<sup>13)</sup>



다. 이 책에 수록된 아카이브즈의 수는 250여개이지만 협회나 단체아카이브즈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과 관련된 회사색인은 약 3000여개에 이른다. *Deutsche Wirtschafts Archive*, Band 1, Franx Steiner Verlag Stuttgart, 1994 참조.

13) Evelyn Kroker, Renate Koehne-Lindenlaub, Wilfried Reininghaus Herg., *Handbuch fuer Wirtschaftsarchive*, Oldenbourg Verlag Muenchen, 1998, p.11에서 Deutsche Wirtschaftsarchive Band 1(1994)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 1) 기업아카이브즈(Unternehmensarchive)

기업아카이브즈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자체 아카이브즈를 일컫는다. 기업아카이브즈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서랍장 식에서부터 소장물의 수나 범위에서 시(市)아카이브즈에 못지않은 큰 체렌(기업연합) 아카이브즈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다양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과거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보호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체 아카이브즈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사료들이 종종 창고나 저장실에 박히게 되거나 유실되기도 한다. 기업아카이브즈의 주요 기능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기억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인 이용을 위해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기록물은 단순히 역사를 쓰기 위한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결정, 보고서 작성, 광고, 홍보자료로서 적극 활용된다.<sup>14)</sup> 이를 위해 기업에서 생산된 문서, 인쇄물, 광고물, 사진, 필름, 테이프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이 아카이브즈에 보존된다. 기업아카이브즈는 이러한 행정적인 유용성에 의해 내적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 아카이브즈는 기업 내부의 이용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학문적인 연구자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학문의 발전과 사회연구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

14) 지멘스 아카이브즈의 기능에 대한 필자의 문의에 대해 지멘스 아카이브즈 아키비스트 프랑크 비텐도르퍼(Frank Wittendorfer)씨는 자사의 아카이브즈의 중요한 역할은 결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기업의 기억을 보조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경영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그는 아카이브즈가 일반에게 개방되어 연구논문의 자료로 이용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료의 개방 뿐 아니라 열람서비스 면에서 연구작업에 도움이 되는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멘스 아카이브즈가 연구정보센터로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아카이브즈의 설립동기는 다양하기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독일의 주요 기업아카이브즈는 기업자체의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둔 박물관이나 역사관 또는 전시관기능에 중점을 둔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기업자체 내의 정보서비스장소로서 기능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일반인이나 연구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정보센터 또는 연구센터로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기업아카이브즈는 과거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일이 돌아올 몇 주년 기념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현실적인 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험의 보고(寶庫)’로서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독일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국제적으로 연구분야에서 그 중심적인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아카이브즈로는 이미 언급한 최초의 기업기록관인 크루프사의 아카이브즈 외에도 BMW의 역사아카이브즈, 다이믈러 벤츠/메르세데스 벤츠의 클래식아카이브즈, 마네스만 아카이브즈, 도이체 방크의 역사아카이브즈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독립건물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아카이브즈에서 기업 내에 설치되어 기록물을 관리하면서 열람서비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독일에서 기업아카이브즈의 형성과정을 대변해주는 크루프사 아카이브즈의 변천사를 통해 기업아카이브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기업의 약력

크루프사의 역사아카이브즈의 소장기록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루프사의 변천사를 개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크루프사는 1811년 에센주의 상인 프리드리히 크루프가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공장으로 철생산으로 시작하였다. 1816년부터는 크루프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해왔으나 그가 일찍 사망하자 부인인 테레제 크루프가 회사의 규모를 줄여 경영을 하였다. 이후 아들 알프레트 크루프가 이어받아 회사를 확장시켰고,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고객의 범위도 외국으로 팽창하였다. 크루프사는 1850년경에 이미 철강계의 주요 업체로 자리를 굳혔고, 이후 광산업계, 조선업계로도 확장발전하였다. 크루프사는 알프레트 크루프 시대에 이미 콘체른(기업연합)으로 성장하였다. 알프레트에 이어 그의 장녀 베르타가 그룹을 인수한 후 크루프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할바하가 베르타와 결혼한 후 크루프 기업의 수뇌부에 합류하였다. 크루프사는 일차대전 중에 국가와의 계약 하에 군수장비를 생산함으로써 전쟁 이전보다 5배가 넘는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전후 군수용품 생산이 금지되어 공장이 해체되자 생산전환을 시도하면서 크루프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기관차, 화물차, 농기구 등을 생산해내면서 다시 활력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수강생산 등을 통해 콘체른이 안정되면서 1926년 크루프는 비디아강철을 시장에 내놓았고 이로써 공구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3년 이후 크루프는 나치스의 경제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된

---

15) <http://www.thyssenkrupp.de>

다. 고속도로건설 등을 계기로 압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라인 하우젠의 철도건설사가 확장을 하게 되었고, 기관차, 화물차, 선박업도 강화되었다. 동시에 크루프사는 군수품생산을 재기하게 되었다. 1943년 프리드리히 크루프 주식회사는 재차 개별기업으로 전환되어 장남인 알프레트 크루프 폰 볼렌 및 할바하에게 양도되었다.

전쟁말기에는 크루프 소유의 공장시설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그루손공장은 연합군에게 몰수되었고 게르마니아조선소는 파괴 및 파손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 후 연합군에 의해 분리되거나 매도명령을 받는 등 전후 상황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크루프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큰체른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67년 알프레트 크루프 폰 볼렌·할바하의 사망 후 그의 아들 아른트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알프레트 크루프 폰 볼렌·할바하 재단이 상속주체가 되었고, 재단은 기업을 프리드리히 크루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

1969년 탄광기업은 콘체른에서 분리되어 루어석탄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 후 몇 년 동안 크루프 유한회사는 중요한 시설구축사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부문의 기업에서 계획적인 확장운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후 Hoesch AG(주식회사)의 대다수 주를 흡수한 크루프사는 1992년에 Fried. Krupp AG Hoesch-Krupp로 등록된다. 또 1980년대부터 크루프 철강주식회사는 굴지의 철강업계의 대기업인 Thyssen사와의 합병작업을 시작하여 1997년에 철강분야를 합병하여 Thyssen Krupp Stahl AG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에는 완전하게 합병하여 Thyssen Krupp AG를 이루었다.

## 크루프 역사아카이브즈의 발전과정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기업아카이브즈로 알려져 있는 크루프사 기업아카이브즈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05년에 설립되었다. 1811년에 설립된 크루프사는 회사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록보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 아카이브즈가 세워지게 되었다. 같은 해에 크루프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확실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가족아카이브즈(Familienarchiv Hügel-이 아카이브즈는 사업주의 저택인 Villa Hügel에 소재하는 관계로 이 저택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도 세워졌다. 이 두 개의 아카이브즈는 오래동안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나중에는 하나의 통일된 아카이브즈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었다. 아카이브즈는 초기에는 크루프사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개별 주제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기초로 기념집을 발간하였다. 1913년에 운영책임을 맡게 된 빌헬름 베르드로브(Wilhelm Berdrow)나 그의 후임으로 온 프리츠 게하르트 크라프트(Fritz Gerhard Kraft) 역시 처음부터 역사 쪽에 중점을 두고 기업사 집필에 업무의 초점을 두었다. 그 이후 경제침체로 인하여 기업이 직원 및 공간을 축소시키는 시기를 거쳐 1938년이 되어서야 아카이브즈의 인력 및 공간확보 문제 등이 개선되었다.

크루프 아카이브즈는 1942년에는 심각한 폭격을 받아 소장물의 10%가 유실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1944에는 가족아카이브즈가 운터브라이츠바하/뉘른의 빈터스할 AG의 칼리굴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그 후 크루프사 기록물은 연합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1949년에 헤르포드도큐먼트 센터에서 슬로스 후젠포트(Schloss Hugenpoet)로 갔다가, 1954년에 다시 빌라 휘젤(Villa Huegel)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때까지는 아카이브즈 운영이 역사에 초점을 두어 조직상 역사부 문 담당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아카이브즈의 기능에 대한 사고의 전

환이 이루어지면서 1946년 3월에는 역사파트가 해체되고 기록물은 국민경제파트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창립초기부터 그 때까지 아카이브즈의 기록물관리는 도서관식 정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아카이브즈는 1958년부터 역사아카이브즈로 불리게 되었다.

아카이브즈의 소장물이 기록학적인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새로이 조직된 것은 1976년 7월 레나테 쾨넬박사가 역사아카이브즈의 운영책임 맡으면서부터이다. 아카이브즈는 계획적으로 기록물들을 포괄적으로 이관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소장물의 정리작업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는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여 전산에 의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1990년대에는 기록물의 수리복원작업과 필름소장물의 내용정리를 위한 특별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전에는 아카이브즈가 기업사 정리에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는 기업의 내부서비스를 위한 기능이 우선되고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의 역사연구지원 및 전시협력 등도 점차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기타 아카이브즈 및 지역협회 등과 공동작업으로 격년으로 산업필름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등 아카이브즈와 일반인과의 피드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학문적인 연구프로젝트에도 적극 협력하여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크루프사가 튀센사와 합병한 이후 1999년부터는 이전의 튀센아카이브즈(Thyssen-Archiv)가 새 콘체른 아카이브즈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크루프 역사아카이브즈 빌라 휘젤은 1998년 알프레드 크루프 폰 볼렌 및 할바흐 재단의 자산이 되었고 전 크루프-콘체른의 기록을 관리하며 크루프 역사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 **소장물 및 이용**

현재 이 역사아카이브즈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물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크루프 역사아카이브즈 소장물<sup>16)</sup>

	구분	소장물	소장량 <sup>16)</sup>	검색도구
가족 기록물		기업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크루프 가(家)인물들의 유고 및 비서실자료, 협회, 단체의 회원, 여행, 가족소유부동산관리, 크루프 식민무역(1732-1811)을 비롯하여 1720년에서 1967년까지의 관련기록을 다수 소장. 빈의 베른도르프 철공장과 관련된 헤르만 크루프의 유고문서(1844-1879), 크루프 폰 볼렌 및 할바흐가(家) 사유지 관리문서(1873-1965).	총 350lfm	전자목록카드
	1. 주강공장/콘체른관리	1842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록. 기업운영자료, 기업의 여러 분야의 기록, 외국지사 기록, 계약서 외 다수	5000 lfm	목록, 전자목록카드 등
기업 기록물	2. 광산 크루프	1853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으로 소유권에 관한 기록, 기술장비 관련 기록 등을 산발적으로 수집. 이와 관련한 다른 기록들은 보름의 광산아카이브즈에 보존.	약2lfm	
	3. 슬레진 니켈공장	1894년에 창설된 슬레진 니켈공장 노동조합 역사에 관한 기록물 등을 산발적으로 수집.	0.4 lfm	카드
	4. 라인하우젠정련소/프리드리히알프레드 정련소	프리드리히-알프레드 정련소의 고기록. 1897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록 소장.	약 400 lfm	카드 아카이브즈 지도(Archiv plan)
	5. 주강공장 보름협회 기록/보름 크루프 제강 주식회사	1854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록	약 420 lfm	카드 아카이브즈 지도 전자목록
	6. 제철공장, 남베스트팔렌 주식회사	1947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록. 이전의 기록물은 베스트팔렌 경제아카이브즈에 소장.	약 6 lfm	목록

16) 독일에서 기록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보통 Regalmeter 또는 lfm(laufende meter)로 표시한다. 전자는 서가의 길이로 표현한 말이고, 후자는 책을 나란히 세워놓았을 때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구 분	소 장 물	소장량16)	검색도구
	7. 필호페너 정련소, 사이너 정련소	1865년 크루프사가 인수한 필호페너 정련소 기록. 1816-1887 기록 소장. 약 150 단위. 프로이센 시대의 기록.		카드
기업 기록물	8. 노이비드의 헤르만스정련소	1901/02부터 1922/23까지의 기록	1 lfm	카드
	9. 비텐의 안넨제철소	1872-1925 기록 소장. 약 450 단위 1870년에 창설되어 1886년 크루프사가 인수		
	10. 마그테부르크-북카우의 그루손공장	1893년 크루프사가 인수했으나 1945년에 몰수되어 인민기업으로 지속. 1772-1981 기록. 그루손 가족사 및 기업기록.	2 lfm	
	11. 비디아공장	1926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록. 1926년 에센의 크루프정련소의 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의 역사가 기록 및 비디아생산물의 기술적 발전관련 기록.	약 75 lfm	카드
	12. 라인하우젠의 철골건축/산업 기술	1906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록,	약 45 lfm	카드 전자목록
	13. 노이베콤의 폴리시우스 주식회사	1841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록,	4 lfm	카드
	14. 에센 하인리히 코퍼스 주식회사	1891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 1901년 하인리히 코퍼에 의해 창설되어 1974년 크루프가 인수. 기업운영 기록, 기술관련기록, 프로젝트, 회계장부 등.	약120 lfm	전자목록 카드
	15. 키일-가든 게르마니아조 선소	1915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록. 300 단위 1863년 크리스티안 브룬에 의해 창설되어 1902년 크루프가 인수. 선박, 기관차의 디젤모터 관련 기록 등.	45 lfm	
	16. 브레멘 주식회사 "베제르"	1850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 1843년에 창설되어 1872년 베제르 주식회사로 변경. 1926년부터 독일 선박 및 기계설계주식회사에 귀속. 1941년 크루프주식회사로 귀속. 선박, 허가, 기업운영기록 등	약 65 lfm	전자목록

	구분	소장물	소장량(16)	검색도구
특별 컬렉션		1. 사진: 약 1860년대부터	약190만장	
		2. 크루프관련 엽서: 1890년도부터.	약 1500장	
		3. 플래카드/메달: 1862년부터.	2 lfm	
		4. 디폴름: 1850-1920	1 lfm	
		5. 특수도서	약 1000여권	
		6. 크루프 인쇄물(일반컬렉션): 1820-1992	30 lfm	
		7. 크루프 인쇄물(기술영역): 1820-1992	50 lfm	
		8. 필름컬렉션: 1936, 1950-1992	약 2000롤	
		9. 비디오컬렉션: 약 1980년부터	약 700개	
		10. 지도 및 카드	150 lfm	
		11. 음성기록, 1930-1992	3 lfm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는 크루프 아카이브즈에는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한 세 명의 아키비스트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두 명의 아키비스트가 배치되어, 기록물의 열람서비스는 물론, 소장물의 정리, 분류 그리고 목록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장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서로 아카이브즈에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의 소장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물로서 출간된 간행물은 도서, 논문 등 수십 권을 해야 한다. 크루프 아카이브즈는 다양하고 수많은 소장물로 인하여 독일의 경제사 연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소개에서 보듯이 크루프사는 역사가 긴 만큼 수없이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기록물을 소실하는 등 수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존되어 온 기록물의 양은 엄청나다. 이것은 단지 크루프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sup>17)</sup>

Thyssen사와 합병이후 현재의 크루프 아카이브즈는 이전의 Thyssen 아카이브즈와 기능분리하여, 크루프 역사아카이브즈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Thyssen Krupp AG의 기록물관리는 이관체계를 갖추고 튀센크루프 아카이브즈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기록학 및 기업아카이브즈 연구의 발전과정 속에서 보면 크루프 아카이브즈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록학적인 관리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것은 1962년에 독일아키비스트 협회에 경제아키비스트의 전문그룹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볼 때, 그만큼 공공분야의 기록물관리와는 달리 기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발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Thyssen-Krupp Konzern Archiv)>

##### 튀센-크루프 콘체른의 기록관리담당

1999년 루어지역의 전통있고 역사깊은 두 개의 기업 Thyssen AG와 Krupp가 합쳐서 이루어진 튀센-크루프 콘체른은 2002년 현재 193,000명의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합병이후 Thyssen AG가 한편으로 전 Thyssen-Konzern 및 콘체른 이전(以前)의 기록, 계열사 기록 중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면서 Thyssen-Krupp AG를 위한 콘체른아카이브즈의 기능을 인수하여 Thyssen-Krupp AG의 문서 및 계열사의 문서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 
- 17) 지멘스아카이브즈에는 3 킬로미터의 인쇄자료를 비롯하여 400,000 장에 달하는 사진, 500여개의 필름, 강연 등의 녹음테이프, 11,000여 점에 달하는 대표적인 지멘스 상품 등이 보존되어 있다. BMW역사아카이브즈는 다양한 생산품과 관련된 수천건의 생산정보, 셀 수 없이 많은 영업관련자료, BMW관련도서 1,800여권, 10만장의 사진 및 슬라이드필름, 5000건의 네거티브, 1600개의 필름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 마네스만 아카이브즈는 185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사진, 필름 등을 포함하여 양 5000미터 보존되어 있다.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는 창업자 아우구스트 튀센(August Thyssen)과 그의 동생 요세프가 소유하고 있지만 크루프 아카이브즈와 달리 튀센가의 아카이브즈는 아니다. 여기에는 주로 기업관련 문서를 다루고 있고 사적인 서신류는 아주 적은 양이 보존되어 있다.

콘체른 아카이브즈의 주요 기능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전 콘체른을 위해 내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sup>18)</sup>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역사와 관련하여 기업의 상담에 응하는 일 외에도,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콘체른을 지원하며, 역사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을 집적한다.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는 크루프 역사아카이브즈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뿐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현재 5.5km의 문서와 250,000건의 사진을 소장하고 대학의 연구자, 박사과정의 연구자, 학생은 물론 박물관, 전시기획자, 방송매체, 필름제작사, 초중고학생들로부터 요구되는 많은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장물의 이용

독일의 기업아카이브즈는 거의 빠짐없이 이용자 규칙을 만들어 이용자가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들을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의 예를 빌어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우선 이용자규칙에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자료의 이용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연구목적을 기입해야 한다. 이용자는 기입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목적으

---

18) Astrid Doernemann, "Ein offenes Unternehmensarchiv-das Beispiel Thyssenkrupp Konzernarchiv", *Archivpflege in Westfalen und Lippe*, Heft 58. 2003. p.29.

로 쓰거나, 열람한 자료에서 획득한 지식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기록물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 문서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소유권보호법을 지켜, 열람자료에서 획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도 안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사전약속을 해야 한다. 이용자는 아카이브즈 담당자와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아키비스트는 찾고자 하는 자료에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역을 해줄 뿐이지 필요한 문서를 찾아서 해독하거나 필사본의 해독을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에서는 현재 세 명의 아키비스트들이 다양한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발굴되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열람은 불가능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내용을 목록상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는 공공기록관과 같은 공개제한기한을 적용시켜, 모든 문서는 업무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세금 또는 수입과 관련된 것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30년 이상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인 및 재판 관계 문서는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할 수 있고 사망일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탄생 후 110년이 지난 후에 이용가능하다. 단,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비공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

---

19)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는 1996년 “Archiv und Wirtschaft(아카이브즈와 경제)”에 소장물을 개관하여 발표한 것을 계기로 그 이후로는 매년 검색도구를 출판하여 접근가능한 기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2년부터 전자 아카이브즈 프로그램 LARS의 도움을 받아 목록작성과 키워드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1년부터는 LARS의 윈도우 버전이 투입·공개되었다. 따라서 컴퓨터상으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카드식 카탈로그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것은 1992년부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고 있지 않다.

인정보는 무명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 도서관에는 도서 11000권, 신문 250 km 가 소장되어 있고, 이용자들은 동시에 도서관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루어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신문들이 특기할 만하고 그중에는 희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신문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개가식으로 진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

튀센-크루프 콘체른 아카이브즈는 많은 현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대학세미나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를 들면,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아카이브즈와 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업아카이브즈에서는 무엇을 발견 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에 대응하여 아카이브즈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미래의 잠재적인 이용자를 확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나 튀센아카이브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카이브즈는 인터넷 상으로 소장물의 개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찾고자 하는 기록물을 웹상으로 열람하는 일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으로는 BMW사의 역사아카이브즈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BMW 아카이브즈는 1998년부터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내부 직원과 연구목적의 외부연구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소장자료에 접근가능하도록 추진해 왔다. BMW는 형태 및 주제를 고려하여 소장자료를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한편으로는 이용자를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 학문적인 연구를 연구자를 위한 시소러스검색, 노련한 데이터뱅크 이용자를 위한 필드검색 및 전문검색으로 나누어 이들이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sup>20)</sup>

---

20) Claudia Adelberger, "Das Historische Archive System der BMW Group im Internet",

## 2) 지역 경제아카이브즈(Regionale Wirtschaftsarchive)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는 어느 일정한 지역의 경제 및 기업관련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아카이브즈로 독일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예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는 그 창설배경이나, 법률적 형태, 재정 면에서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생산된 곳에서 적절히 보존되지 못하거나 심히 파손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물들은 지역 경제아카이브즈가 무료로 접수한다. 그리고 접수한 자료를 확실한 보관소에서 보존하고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내용적인 정리를 한다. 기업아카이브즈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는 개방적이어서 학문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또한 경제면에서 다양한 역사적인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밖에 기업아카이브즈의 건립에 대한 조언을 하고, 전시회, 출판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사, 사회사, 기술사적 문제제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한 가지 지역 경제아카이브즈에 공통적인 것은 상공회의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상공회의소 내에 전문적인 보호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그 기록물이 다른 공공아카이브즈로 이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록물들은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로 이관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는 1906년 쾰른에 최초로 지역 경제아카이브즈가 설립된 것을 필두로, 도르트문트(1941), 슈투트가르트-호헨하임, 라이프찌히(1993), 다름슈타트(1992), 뮌헨(1994) 등에 6개의 지역 경제아카이브

즈가 있다. 이들은 주로 산업체 및 상공회의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상공회의소, 경제관련 협회나 단체, 개별기업 또는 경제계 인물 등의 기록이 소장되어 있어 지역경제사,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는 지역의 기록물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간의 상호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 한 예로, 도르트문트에 아카이브즈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쾰른 아카이브즈(라인-베스트팔렌지역)가 베스트팔렌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르트문트 아카이브즈(베스트팔렌지역)가 설립된 이후에도 베스트팔렌 상공회의소에서 생산된 경제사적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쾰른의 경제아카이브즈나 또 다른 경제기록물 소장지인 뮌스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쾰른과 뮌스터에 있는 베스트팔렌 상공회의소 관련 중요한 기록군이 도르트문트로 이관되어 해당 지역민들이 기록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21)</sup>

#### <라인-베스트팔렌 지역 경제아카이브즈(RWWA, Die Stiftung Rheinisch-Westfälischen Wirtschaftsarchive zu Köln)>

라인-베스트팔렌 지역 경제아카이브즈(RWWA)는 가장 오래된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로 1906년에 쾰른에 설립되었다. 라인란트 지역의 경제주체들, 그 중에서도 쾰른 상공회의소에 의해 자치운영되고 있는 RWWA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제기록물을 구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고, 또 하나

---

21) Klaus Pradler, "Ein Bericht aus der Sicht eines Archivars im Westfälischen Wirtschaftsarchiv in Dortmund", *Archivpflege in Westfalen und Lippe*, Heft 57, 2002, p.26.

는 경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즈의 역할이다. 이곳에서 경제아카이브즈는 안전하게 보존되고 정리되며 라인지역의 역사자료로 영구히 보존된다. 또 기업, 협회, 회의소 등에 기록관리에 관한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고, 아카이브즈의 건립과 유지에 관한 조언, 기업 사편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밖에 RWWA는 쾰른대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많은 경제사 관련 출판물을 발간하며 지역경제 연구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RWWA는 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 소재했거나 소재하고 있는 300여 개 이상의 회의소, 기업, 협회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162개 기업, 21개 상공회의소 및 동업조합, 68개의 개인유품, 32개의 단체 및 협회의 기록물 외에 현수막, 신문, 메달 등 20여 종류의 컬렉션), 170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수많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sup>22)</sup>. 수집된 자료들은 생산지별로 구분되어 정리되고, 목록작업을 거쳐 검색도구를 만들어 일반에게 열람된다. RWWA는 위의 예에서 본 기업아카이브즈와 마찬가지로 라인-베스트팔렌의 경제사 자료집적지 및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헤센주 지역 경제아카이브즈(Hessisches Wirtschaftsarchiv)>

다름슈타트에 소재하고 있는 헤센주의 지역 경제아카이브즈는 1992년 헤센주 상공회의소에 의해 창설되었다. 재정적인 책임은 헤센주의 경제아카이브즈 후원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헤센주가 무료로 사무실과 기록물보관소를 제공하고 있다.

헤센경제아카이브즈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2) 구체적인 소장물의 양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http://www.archive.nrw.de> 참조

1. 헤센주의 상공회의소, 협회, 기업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경제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서, 도면, 광고자료의 수집, 보존, 정리.
2. 독자적인 기업아카이브즈 건립 상담
3. 경제사적인 문제 관련 순회전시회 개최
4. 헤센주 경제사 및 기업사에 관한 총서 출판

헤센경제아카이브즈는 10년 동안 (상공)회의소, 협회, 기업 등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온 결과 소장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곳에는 현재 12개 (상공)회의소, 8개의 협회 및 단체, 65개 기업의 기록물과 컬렉션<sup>23)</sup>을 소장하고 있다. 주로 헤센 주 상·공회의소 기록물, 헤센주 경제협회 및 단체 기록물, 헤센주 기업 기록물, 헤센주 경제부문 인사의 유물, 유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sup>24)</sup> 이들은 어떤 기업아카이브즈의 소장물 중에서 이관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일품목으로 기증을 받거나 구입한 자료들이다. 소장물과 컬렉션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또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보호기간에 따라 보존되며, 자료들은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 기업 또는 협회의 기록물 중에는 18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적지 않아 중요한 경제사 연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의 소장자료를 기초로 하여 출판된 헤센주 경제사 및 기업사관련 서적이 이미 여러 권에 이르고 있다.

또 아카이브즈 내부 도서관에는 헤센주 역사, 경제사, 기업연보 등

- 
- 23) 컬렉션의 구체적인 아이템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헤센 경제부문의 사진 · 경영규칙 및 업무규칙 · 광고모티브가 들어있거나 시의 모습이 담긴 역사적인 엽서 · 증명서(상장, 기능장, 면허증) · 헤센주 기업의 레터헤드 · 역사적인 문서 · 임시화폐, 제국은행지폐 · 메달, 옷핀 · 기업현판 · 지도 · 기업 및 협회 광고우표, 메세 및 기타 이벤트 우표 · 광고 현수막 · 기타 광고물
  - 24) 구체적인 기록물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http://www.hessischeswirtschaftsarchiv.de> 참조.

을 중심으로 한 장서 15000권이 소장되어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즈의 자료와 함께 도서관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전의 프랑크푸르트상공회의소 도서관에서 넘겨받은 전문협회의 정기간행물 및 일간지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 3) 업종별 아카이브즈

앞의 두 개의 유형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등장한 업종별 아카이브즈(Branchenarchiv)<sup>25)</sup>의 대표적인 예로는 1969년 보쿰에 창설된 광산아카이브즈를 들 수 있다. 업종별 아카이브즈는 원칙적인 임무와 목표 면에서는 지역 경제아카이브즈와 거의 비슷한데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 경제아카이브즈가 해당 지역 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업종별 아카이브즈는 그 공간적인 책임이 연방전역에 걸쳐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단 한 분야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보쿰의 광산아카이브즈 외에 도자기 산업 아카이브즈, 건축업계의 아카이브즈 등이 있다.

#### (1) 보쿰 광산아카이브즈(Bergbau-Archiv Bochum)

독일에서 폐쇄된 광산의 구기록물 보존에 대한 문제는 1967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특히 독일 광산박물관이 주동이 되어 기록보존 시설의 건립을 제안하였고 여기에는 본의 광산 협회, 보쿰 루어대학의 경제사 및 기술사 분야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였다. 보쿰의 광산아카이브즈는 이들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1969년 7월 1일 독일 중앙광산역사아카이브즈로 창설되었다. 그 운영책임은 베스트팔렌 광산조합, 광산 경제협회, 독일 석탄채광 총협이 맡고 있고, 창설 이후 주로부터 개

---

25) Branschenarchiv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엄격히 번역하면 계열아카이브즈에 가깝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동종의 산업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므로 '업종별 아카이브즈'로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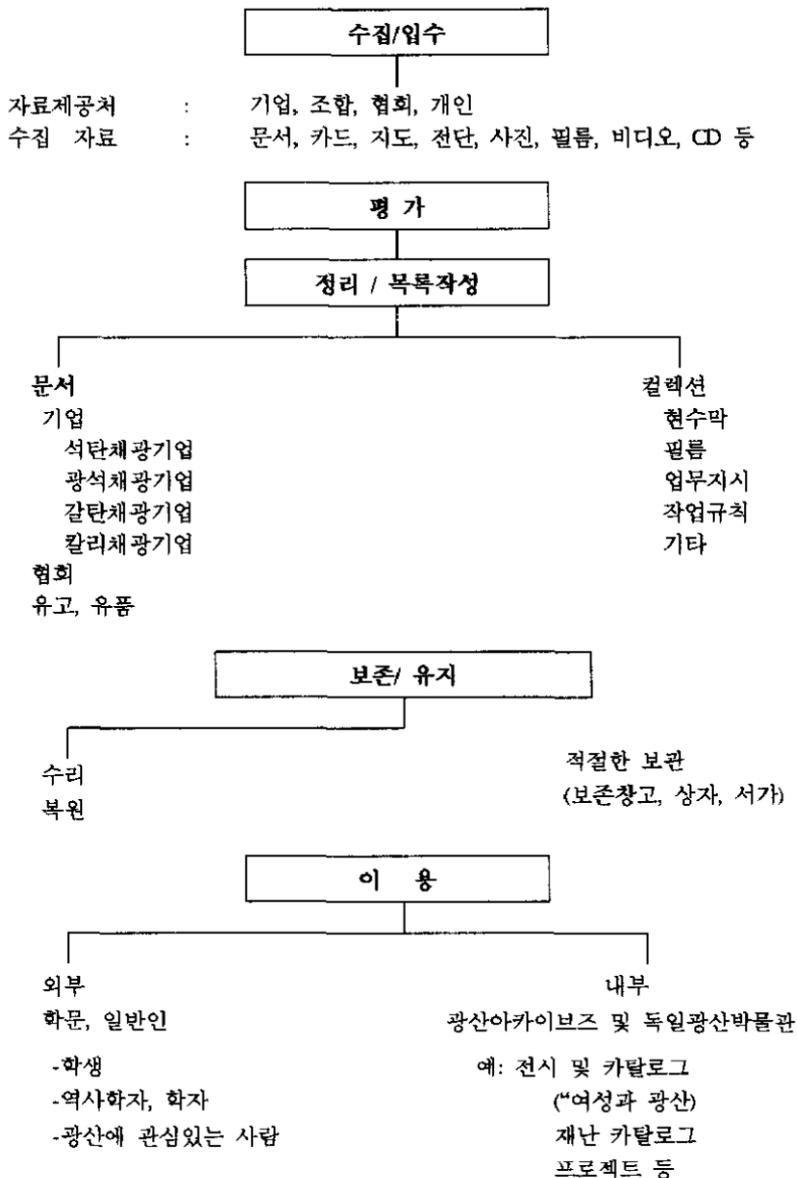
별 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있다. 보쿰의 광산아카이브즈는 지역 경제아카이브즈, 기업아카이브즈로 존재하던 독일의 아카이브즈의 유형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아카이브즈문화에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제공해 주었다. 업종별 아카이브즈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산업전문화된 아카이브즈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역사성을 구현하면서, 경제분야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독일경제아카이비스트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경제아카이브즈 상을 수상하였다. <표2>는 보쿰 광산아카이브즈의 임무<sup>26)</sup>를 나타낸 것이다.

보쿰 광산아카이브즈는 기술사적 자료가 되는 광산필름자료를 열람자가 이용가능하도록 목록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아카이브즈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가령, “여성과 광산”, “독일 광산의 외국인”, “누가 광산을 지블할 것인가?” 같은 주제별 전시회 등을 기획하는 등 일반인과의 피드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전시회는 신청을 받아 순회전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아카이브즈는 협회, 광산, 조합 등에서 자료들을 인수받아 무료로 정리하여 보존관리해 주기도 하고, 개인도 광업관련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

26) 이 자료는 보쿰아카이브즈에서 보내 온 자료로 내부에서 작성된 낱장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표 2> 보쿰 광산아카이브즈의 임무



## 소장물

보쿰아카이브즈 중 150여개 이상의 광산기업 및 협회,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을 총 4000 레갈미터 소장하고있는데, 기록물은 석탄 채광기업(2000미터), 광석채광기업(1000미터), 광산업협회(600미터), 유고 및 박물(400미터) 등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그밖에 현수막(2000개), 팸플과 비디오(2600개)를 포함하여 전단, 광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컬렉션이 있다. 소장기록물 중에는 1800년대 후반 기록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매년 연구자, 학예사, 학생, 학생, 언론인, 관청이나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소장물관련 문의는 약 500건에 달하고 있고, 아카이브즈에는 약 100여건 정도의 이용자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보쿰의 광산아카이브즈는 광산 박물관과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와 연구의 기능을 갖추고 명실공히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독일광산박물관으로 불리는 이 박물관은 1930년에 베스트팔렌 주 광산조합과 보쿰시가 창설하였는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광산박물관으로 알려져 있고 아카이브즈의 기능이 결합되면서 광산역사의 연구소로서 그 평판이 높다. 이 박물관은 독일 내에서도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매년 4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아카이브즈

(Archiv für Architektur und Ingenieurbaukunst NRW)

이 건축아카이브즈는 이 업계의 컬렉션을 수집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주요 건축가 및 기술자들이 남긴 수많은 기록물이 일반인이나 건축사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서 기록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1995년 도르트문트에 창설되었다. 건축계에는 프랑크푸

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이나 TU 뮌헨, 베를린의 예술아카데미 등의 컬렉션으로 이미 관련기록이나 박물이 보존되고 있으나 이를 보충하고 또 특히 이 지역의 전후에 알려진 건축가와 기술자들의 작품을 수집 보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아카이브즈는 건축가들의 생각을 포함하여 그들이 남긴 작품 및 사물들을 수집가능한 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도면은 물론, 문서, 모델, 관련 문헌, 관련사업을 해명해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등을 그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록물의 분류작업이나 정리작업 그리고 연구작업 중에 기록물의 생산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여 현존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기록물 수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아카이브즈는 1890년대부터 196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가교건설 부분의 25,000개의 지도는 독일 철강업계의 중요한 기록물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는 이와 같이 아카이브즈의 형성목적 및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이밖에도 기업가협회 및 관련단체가 독자적인 아카이브즈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 내에 경제 및 기업관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 경제아카이브즈가 있다. 쾰른대학의 경제 및 사회과학부 경제아카이브즈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쾰른대학 경제아카이브즈는 1903년 한 강사가 무역기술 강좌를 위해 개인적으로 수집해 놓았던 기록물을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된 이래 점차 발전하여 1919년에는 쾰른 대학 경제 및 사회과학부 경제아카이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이 아카이브즈에는 국내외 개별 기업 기록은 물론, 국내외 기업의 기념식에서 나온 기념사, 편람, 경제관련신문, 잡지, 사보, 뉴스레터 등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쾰른대학의 경제아카이브즈는 기본적으로 학생증을 제시해야만 열람이 가

능한 제한이 따르는 등,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유형의 아카이브즈와는 다소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키일대학 내에도 세계경제연구소 경제아카이브즈가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독일의 경제아카이브즈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아카이브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각각의 유형은 그 발생동기나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각 아카이브즈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의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기업아카이브즈의 경우는 기업 자체의 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기업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과거의 기록에서 오늘의 거울을 삼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고자하는 목적이 우선일 것이다. 기업아카이브즈는 기업의 창립을 기념하여 사사편찬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주요 계기가 되어 창설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역사가 길어지고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기업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대변하는 역할로 바뀌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기록은 사적인 기록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업아카이브즈의 기능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아카이브즈는 변화에 따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기업아카이브즈의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독일을 시작으로 후발적으로 경제아카이브즈 또는 기업아카이브즈가 창설된 기타 선진국

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지역 경제아카이브는 독일에서 드러난 특수한 형태의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공공아카이브에 비즈니스 관련 기록물이 소장된 경우는 볼 수 있으나 특정 지역 내의 경제관련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경제아카이브가 설립된 경우는 특이하다 하겠다. 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국가의 무역 및 산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밝혀주는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국립 경제 아카이브(Danish National Business Archives)를 가지고 있다. 기업과 기관들은 기록의 이관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은 수집 및 기증에 의존하고 있으나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의 근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라는 아카이브의 중요한 역할을 직시하고 풍부한 자료수집과 이용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sup>27)</sup> 독일의 경우는 경제관련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관련조직의 주체적인 운영과 지역정부의 협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 경제아카이브에는 개인기업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는 기록물보다는 지역사회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이 입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라지는 기업들의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는 곳으로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 점은 업종별 아카이브의 경우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업종별 아카이브는 특정업종의 주요 기록물을 보존관리함으로써 동종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두각될 것이다. 특히 보قم의 예에서 보듯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

27) Henrik Fode & Jørgen Fink, "The Business Records of a Nation: the Case of Denmark", *The American Archivist*, Vol. 60, Number 1, 1997.

특정업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현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이박물관, 인쇄박물관 또는 석탄박물관 등에 아카이브즈의 기능을 갖추어, 단순한 전시기능이나 방문학습현장으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명실공한 연구센터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시기능에 중점을 둔 박물관의 형태로는 그 산업의 역사나 전체적인 상황 또는 사회사적인 위치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양산업에 속하는 탄광업의 경우, 자료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멸실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박물관도 보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측면에서 아카이브즈와 결합시켜 그 기능을 확대해 간다면 관련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기타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산업분야의 운영주체들이 정보 및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아카이브즈를 설립해나가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준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경제아카이브즈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독일경제아카이스트협회를 매개로 하여 상호 협조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이들은 경제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일차자료를 미래를 위해 보존하고, 경제에 유익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기록물이 사회적인 유의미성을 구현시키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아카이브즈가 단지 기록물을 보존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자산을 일반인과 공유하며 피드백을 도모하면서 정보의 중심, 연구의 중심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아카이브즈를 이용하지 않고는 독일에서

사회사, 경제사 등의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실은 아카이브즈의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해 준다.

본고는 독일의 경제기록물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어떻게 보존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독일아카이브즈의 유형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각 유형의 사례를 통해 개별기업의 아카이브즈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경제관련 기록물을 보존 관리해 가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아카이브즈의 유형에 따른 기록물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각 아카이브즈의 형태적 특성 외에 실제로 운영체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요소들에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기록물을 위시한 경제관련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경제아카이브즈의 의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고에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경제기록물에 관련된 세부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 The Formation and Types of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Kim, Young-Ae

The term 'Business Archives' is not familiar with us in our society. Some cases can be found that materials are collected for publishing the history of a firm on commemoration of some decades of its foundation. However,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se collected materials doesn't seem to be followed in most of companies.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s inevitable in order to maximize the utili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business world. The interest in records management has been grow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business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 importance of business archives hasn't been conceived yet. And also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business archives as social resource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ety as a whole for their preservation.

The company archives doesn't have a long history in Germany although the archives of the nation, the aristocracy, communes and churches have a long tradition. However the company archives of Krupps which was established in 1905, is regarded as the first business archives in the world, It means that Germany has taken a key role to lead the culture of business archive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and its characteristics. The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can be categorized in three types: company archives,

regional business archives and branch archives. It must be noted here that each type of these was generated in the context of the accumulation of the social resources and its effective use. A company archives is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company for the preservation of and use of the archives that originated in the company. The holdings in the company archives can be used as materials for decision making of policies, reporting, advertising, training of employees etc. They function not only as sources inside the company, but also as raw sources for the scholars, contributing to the study of the social-economic history. Some archives of German companies are known as a center of research.

A regional business archives manages materials which originated in commerce chambers, associations and companies in a certain region. There are 6 regional business archives in Germany. They collect business archives which aren't kept in a proper way or are under pressure of damage in the region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They are also open to the public offering the sources for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social history like company archives, so that they also play a central role as a research center.

Branch business archives appeared relatively late in Germany. The first one is established in Bochum in 1969. Its general duties and goals are almost similar with ones of other two types of archives. It has differences in two aspects. One i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ranch business archives covers all the country, while regional business archives collects archives in a particular region. The other is that a branch business archives collects materials from a single industry. For example, the holdings of Bochum archives are related with the mining industry. The mining industry-specialized Bochum archives is run as an organization in

combination with a museum, which is called as German mine museum, so that it plays a role as a cultural center with the functions of exhibition and research.

The three types of German business archives have their own functions bu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each other under the German Association of Business Archivists. They are sharing aims to preserve primary materials with historical values in the field of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keeping the archives as a social resources by having feed back with the public, which leads the archives to be a center of information and research.

The German case shows that business archives in a society should be preserved not only for the interest of the companies, but also for the utilities of social resources. It also shows us how business archives could be preserved as a social resource. It is expected that some studies which approach more deeply on this topic will be followed based on the considerations from the German case.